

인터넷은 '불교학술정보 산실'

'불교실천윤리' '佛門' 등 전자잡지 활동 눈길

인터넷 상에 불교학술 관련 학술지 출판물 통한 불교학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속속 출간되고 있는 인터넷 불교 학술지 최근 호에는 불교의 학술적인 탐구를 통해 사회실천윤리로서 재평가하려는 미주·유럽 등 서구인의 노력이 담겨져 있다. 또한 각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범세계적인 종교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원화된 불교의 권위있는 의견이 수록됐다는 특징도 있다.

이들 학술지 가운데에는 <불교실천윤리>(Journal of Buddhist Ethics), <트리사이클 허브>(Tricycle hub), <탄트라 불교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Tantric Studies), <佛門>(Buddhist Door) 등이 주목된다. 이 중에서 <불교실천윤리>와 <탄트라 불교학회지>는 지난해 호주국립대학에서 평가하는 사회과학 분야 정보 평가를 통해 최우수 잡지로 선정될 만큼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불교실천윤리>(편집장·프리비쉬) 최근호에는 데이비드 체플 교수(하와이대, 미국)의 '대승불교의 차별화된 윤리', 찰스 홀리시 교수(하버드대, 미국)의 '원사불교 윤리의 특성설(特定說)'

주제로 진행중인 온라인 전자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천자 미만의 분량으로 소논문들을 작성 오는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소논문은 <불교실천윤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게재

을 쓴다. <탄트라 불교학회지>는 게릴리교수(편집장, 하버드대 교수)를 중심으로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발간된다. 탄트라 불교를 주 연구과제로 삼는 학회지로 불교언어철학, 미학, 경전 등을 주로 수록하고 있다. 또한 탄트라 불교와 관련된 의학·화학·점성학·역사 등의 논문도 다수 게재되고 있다.

세계종교학자 논문·경전등 열람 가능 온라인 전자회의에 독자 직접 참여도

등을 비롯 4개 소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불교실천윤리>지에는 지역을 망라한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회의'도 개최해 관련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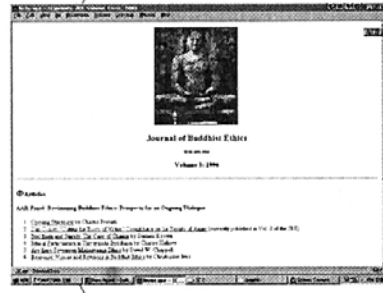
현재 '서구불교의 윤리'라는 단. <탄트라 불교학회지> 역시 주목받는 학술지로 최근호에는 티벳불교의 종교적인 '술'(禮典)을 다룬 캔달 교수(웨일즈대, 영국)의 논문 '구루의 팔면무(八面舞)'가 특히 눈길

이외에도 <트리사이클 허브> 최근호를 통해 티벳사원에서 2주 동안 명상을 한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 인터뷰를 비롯 작가 로렌스 루우드의 자서전적 수필 '빙사의 고백'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발간되는 월간 <佛門>에는 부처님 일대기와 '인연법'이 잘 설명되어 있다. 특히 <佛門>은 여성불자 및 비구니를 위한 읽을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 <불교실천윤리> <http://www.psu.edu/jbe/jbe.html>
- <탄트라불교학회지> <http://www.shore.net/~india/jts/>
- <트리사이클 허브> <http://www.tricycle.com/>
- <佛門> <http://www.tunlink.ca/>

오종욱 기자



◇인터넷상에 불교학술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불교학술지 최근호 출간이 활발해졌다. 사진 위는 <탄트라불교학회지>, 가운데는 <불교실천윤리>, 아래는 <트리사이클 허브>의 홈페이지.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환

동화사

강생원

莫逐有緣住空際 (막촉유연물주공인) 一淸平澹能自盡 (일淸평담능자진) 止動靜止更難動 (지동정지지경미근) 一淸不兩處失功 (일淸불양처실공)

세간의 인연을 좇지도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마라. 한가지만 그대로 지나면 헛것은 스스로 다하리라.

움직임을 쉬어서 그림으로 들어가면 그림이 다시 움직임을 되니. 허리에 통달하지 못하면 양쪽에 빠져 모두 잃으리라.

해설

동화사 강생원 이점점 더 크게 움직이므로 그림 그칠 코르도 들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망상을 떨려는 생각도 덜지 않으려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승찬의 법맥은 4조 도신(道信)에 전해졌다. 승찬님의 <신심명>은 처음 발심할 때부터 구경성불을 할 때까지 수행인이 가져야 할 심신을 4자씩의 시구 146구로 응집한 것이다. 원문에는 앞의 3구절과 네

이점점 더 크게 움직이므로 그림 그칠 코르도 들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망상을 떨려는 생각도 덜지 않으려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승찬의 법맥은 4조 도신(道信)에 전해졌다. 승찬님의 <신심명>은 처음 발심할 때부터 구경성불을 할 때까지 수행인이 가져야 할 심신을 4자씩의 시구 146구로 응집한 것이다. 원문에는 앞의 3구절과 네

이점점 더 크게 움직이므로 그림 그칠 코르도 들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망상을 떨려는 생각도 덜지 않으려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승찬의 법맥은 4조 도신(道信)에 전해졌다. 승찬님의 <신심명>은 처음 발심할 때부터 구경성불을 할 때까지 수행인이 가져야 할 심신을 4자씩의 시구 146구로 응집한 것이다. 원문에는 앞의 3구절과 네

“능엄경 선사상성리학 수용 토대”

보조사상세미나서 발표 이제현 정몽주 이색등 선불교에 심취



석축기(1689년), 응진당 불상 명패(1722년), 괘불(1727년), 대웅보전 상량문(1754년), 구 후불탱화·칠성탱화·신증탱화·독성탱화·산신탱화(1943년), 신 후불탱화(1993년)이며, 따라서 응진당 불상 명패의 명문은 그동안 응진당의 조각상은 물론 대웅보전이나 명부전의 건물과 여러 조각상들의 조성연대를 막연히 조선 후기라고 추측해 온 것과는 다른 1722년에서부터 1754년(상량문) 사이인 18세기 전반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1842년 이후 미황사의 탑비나 부도 등 그 밖의 어떤 유적이거나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기할 만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미황사가 소재한 해남 서정리 주민들이 1백50년전에 있었다고 증언한 '군고(軍鼓)패사 설화'-미황사 스님들이 중창불사를 위해 군고를 편성해 청산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다가 풍랑을 만나 파선해 죽었다는 내용-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불교문화연구'에는 미황사의 역사·승려 행장고·건축·부도·탑·설화 등 6편의 지표조사결과가 실려있다. <우>

미황사 最古유물은 '석축기'

황호균씨 조사 응진당 불상명문도 새로 발견

전남 미황사 유물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적비가 아니라 '석축기'이며, 응진당의 불상 명패에 새겨진 명문이 새로 발견됐다는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다. 황호균씨(전남대학교 박물관 학예 연구사)는 최근 미황사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모아 남도불교문화연구회가 발간한 '불교문화연구' 제5집 '미황사의 유적·유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씨는 미황사의 유적·유물중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간화선(看話禪)이 유행하기 이전의 禪은 이자현의 '반문성성(反問問性)'이며, 능엄경은 고려시대 사대부들의 성리학 수용을 위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원씨(원광대 강사)는 오는 27일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이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될 논문 '이자현의 능엄선 연구'에서 간화선이 성행하기 이전의 禪은 고려시대 유학자 이자현의 '반문성성(反問問性)'이라고 주장했다.

간화선 이전 '反問問性' 수행 유행 듣는 성품 관조... 염불선으로 발전

조씨는 고려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국불교에서만 그 정통성을 유지해오고 능엄경 간화선은 당시 고려 선종계에서 능엄경을 통한 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대부들에 의해 널리 퍼졌으며, 따라서 간화선이 성행하기 이전에도 분명 사상적 기반이 있었을 것이라는 데 착안한 결과 이자현의 선사상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자현(李齊賢, 1061~1125)의 반문성성이란 소리에 집중하는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듣는 성품을 돌이켜 관조하는 것'이란 의미

를 담고 있다. 즉,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통해 선수행(禪修行)을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는 우선 외부의 소리(바람, 물소리 등)를 듣고 다음으로 내면의 소리를 들은 후 듣는 소리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후일 염불선의 형태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또 종래 법문에서 중시됐던 태고 보우 종사의 흥분 보다는 오히려 나용과 그의 문인들이 당시 선종계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강조한 조씨는 이들이 수행과정에서 일정한 선적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해 준 것이 능엄경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능엄경은 차츰 선종의 대표적인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확립돼 선사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경전으로 자리잡게 됐으며, 따라서 점차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당시 주자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성철禪사상연구원' 5월말 개원

성철스님문도회가 운영하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스님)은 5월말 '성철禪사상 연구원' 사무실을 공식 개원 기념 행사를 공식 개원 기념식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지난 3월 원장에 목재배 교수(동국대), 연학실장에 신규택 교수(연세대 철학과) 등 6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학술연구비 지원 및 불경번역사업, '백련불교문화' 발간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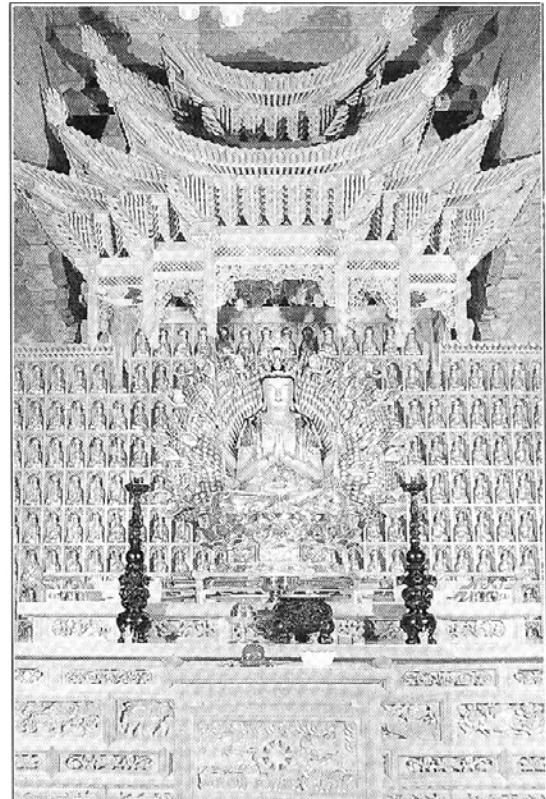
'한국불교학' '불교학보' CD롬 6월 선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펴내는 연간 논문집 <불교학보>와 한국불교학회지 <한국불교학보>가 CD롬으로 제작돼 선보이게 된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은 지난달 16일부터 예치 이미지 기획에서 추진중인 전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 무 실 (02) 738-8447~8
- 공 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